

임연세 노 2







← 남편

자기, 오늘 일찍 퇴근하지?

오랜만에 와인 한잔할까? 자기 좋아하는 걸로 한 병 사놔어ㅎㅎ

남편

아.... 오늘은 좀 바쁠 거 같은데. 미안해서 어쩌지...

그렇구나. 어쩔 수 없지 뭐.

모처럼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...

남편

대신 내일 휴일이니까 영화보러 가는 건 어때?

.....아니.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닌 거 잘 알잖아.

남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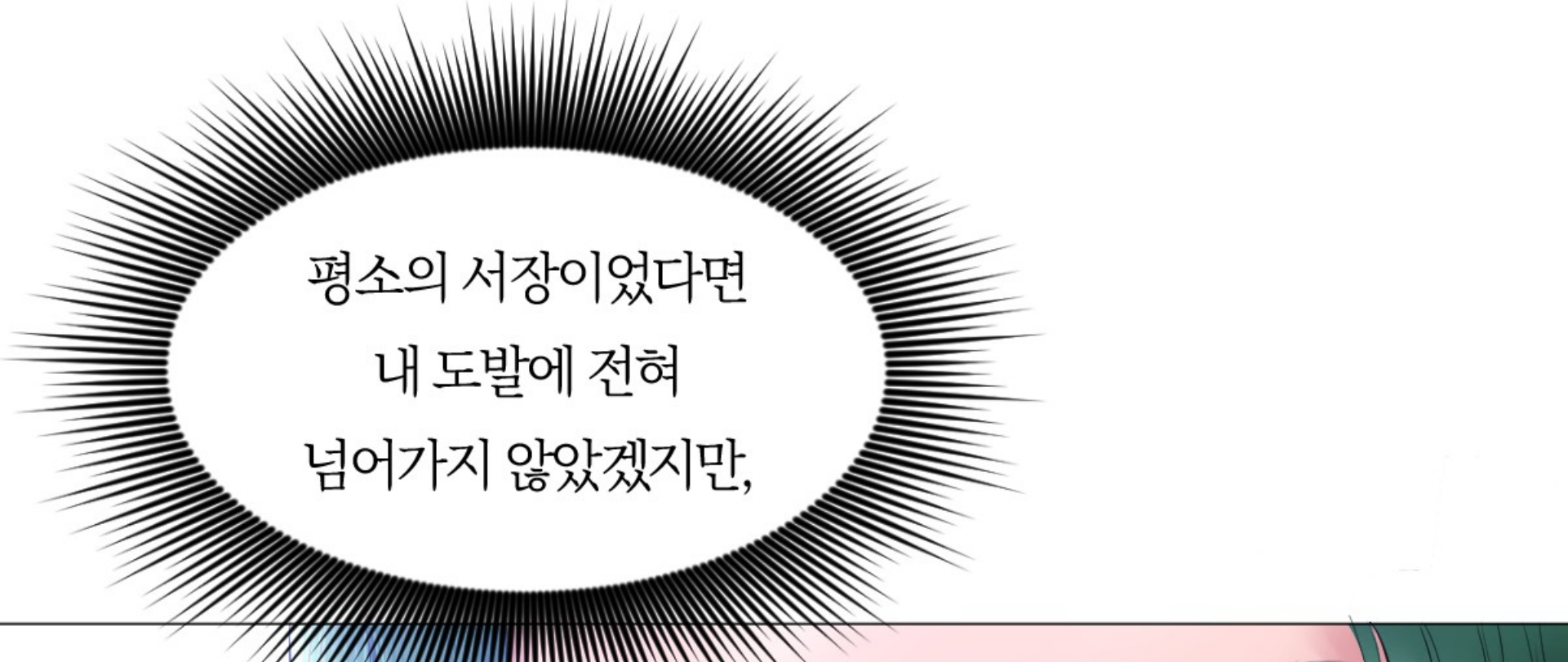
미안해..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. 컨디션 회복되면 꼭...

당신이란 언제 잠자리 가졌는지 이젠 생각도 안날 지경이야



AI Generated





평소의 서장이었다면
내 도발에 전혀
넘어가지 않았겠지만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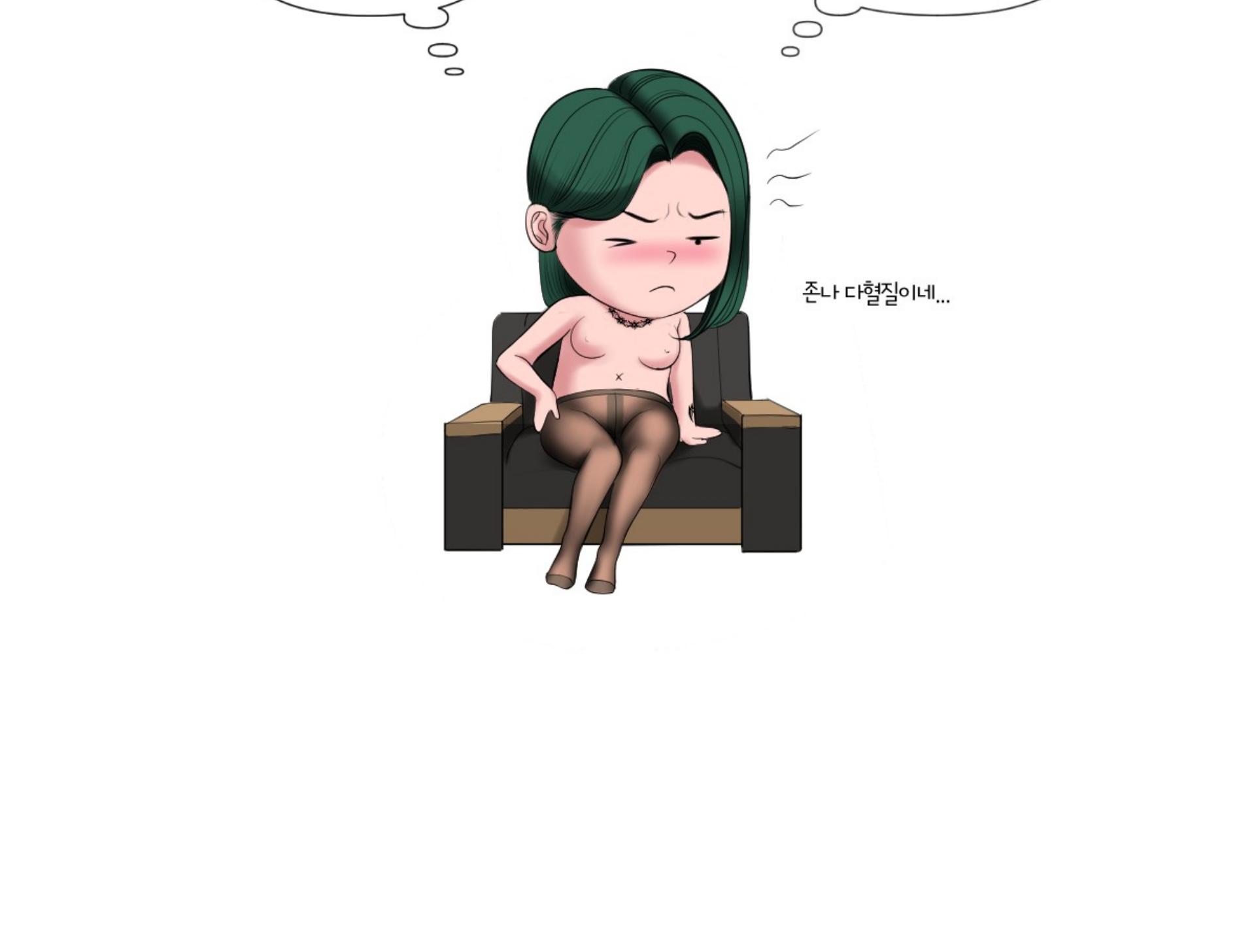
지금은
사춘기 소녀보다도....

아
하
♡

푹

푹

멘탈이
취약해진 상태.



아무리 그래도...

그렇게 무자비하게
집어던질 줄은...

존나 다혈질이네...



우웃...!



도무지
지칠 줄 모르는군...!

팡

팡

실로 경이로운
체력이야...



하하하...

팡

팡

어때?



이, 이래도...
하웃...♡

내가
저 애송이년보다...
별로야?

....푼!
아니.

그냥 한번
놀려본거야.

넌 저런 하찮은
여경 따위와 비교할 수 없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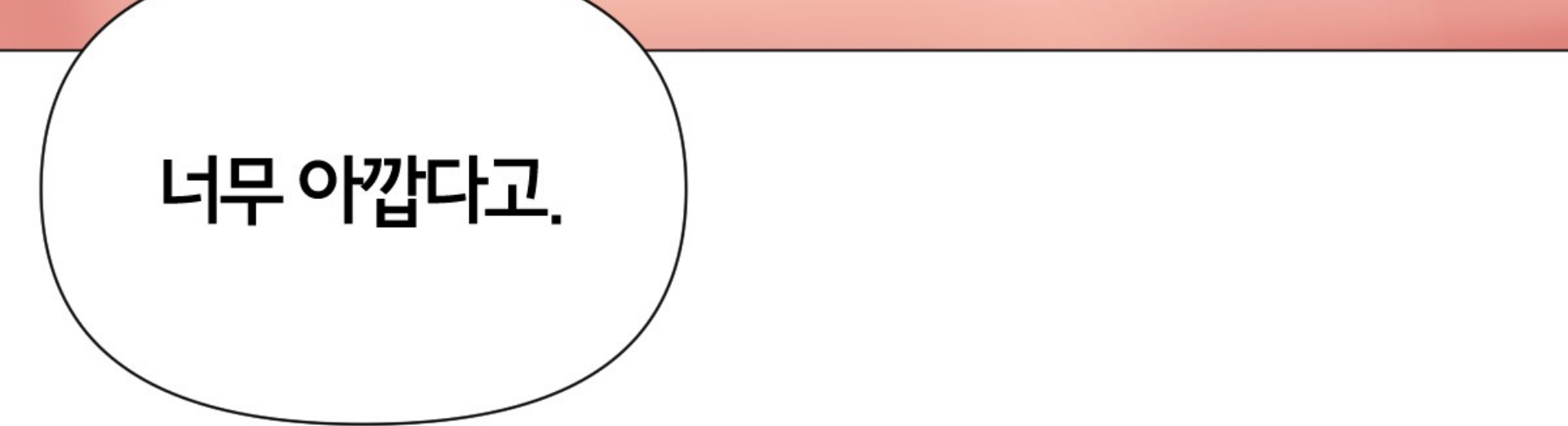
어...?

네가 억누르고 있는
욕망을 끌어내려고
일부러 자극한거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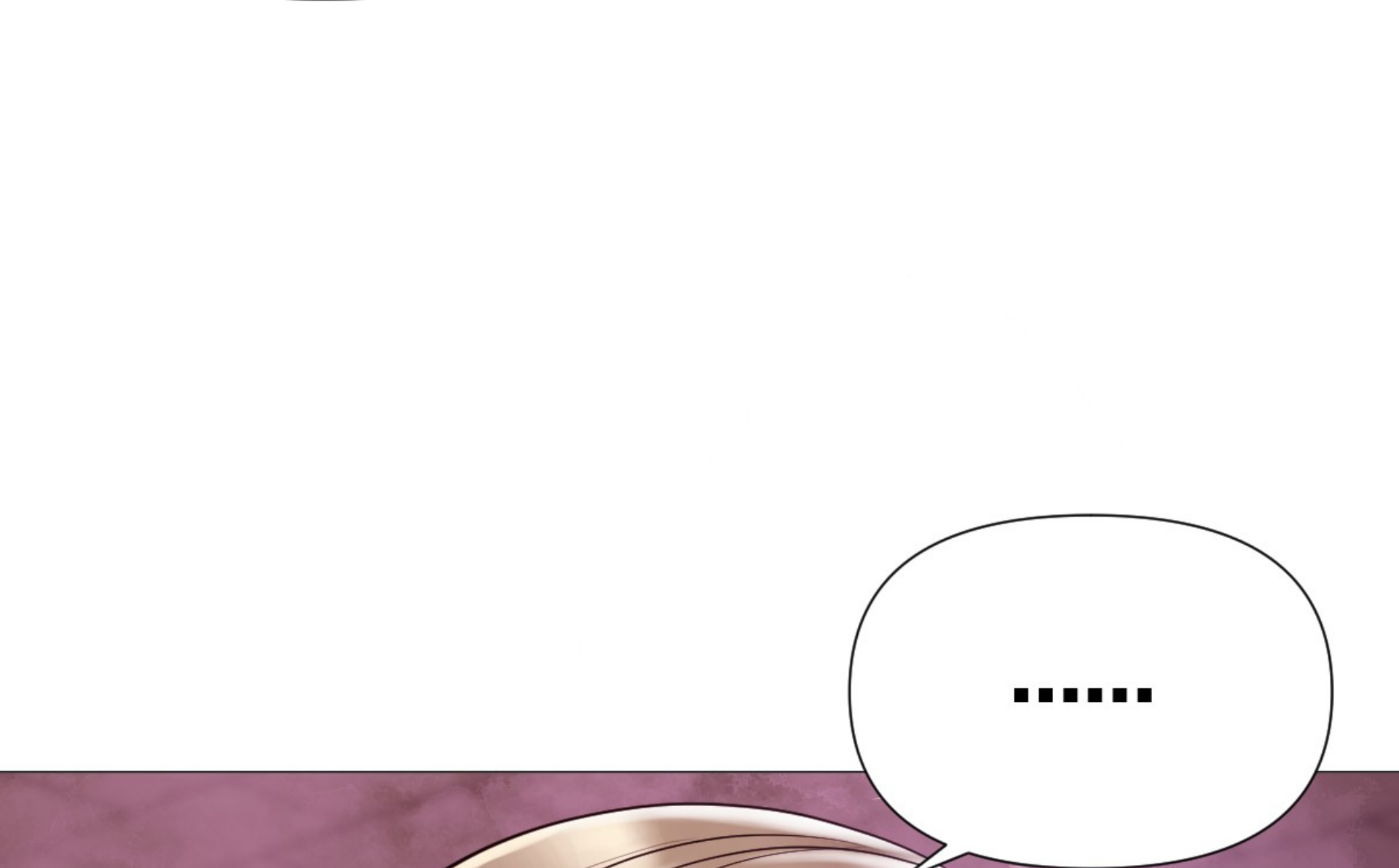
넌 네가 가진 능력과
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
살고 있으니까.



너처럼 완벽한 여자가
쓸모없는 윤리의식 때문에
그런 시덥잖은 놈을
품고 살다니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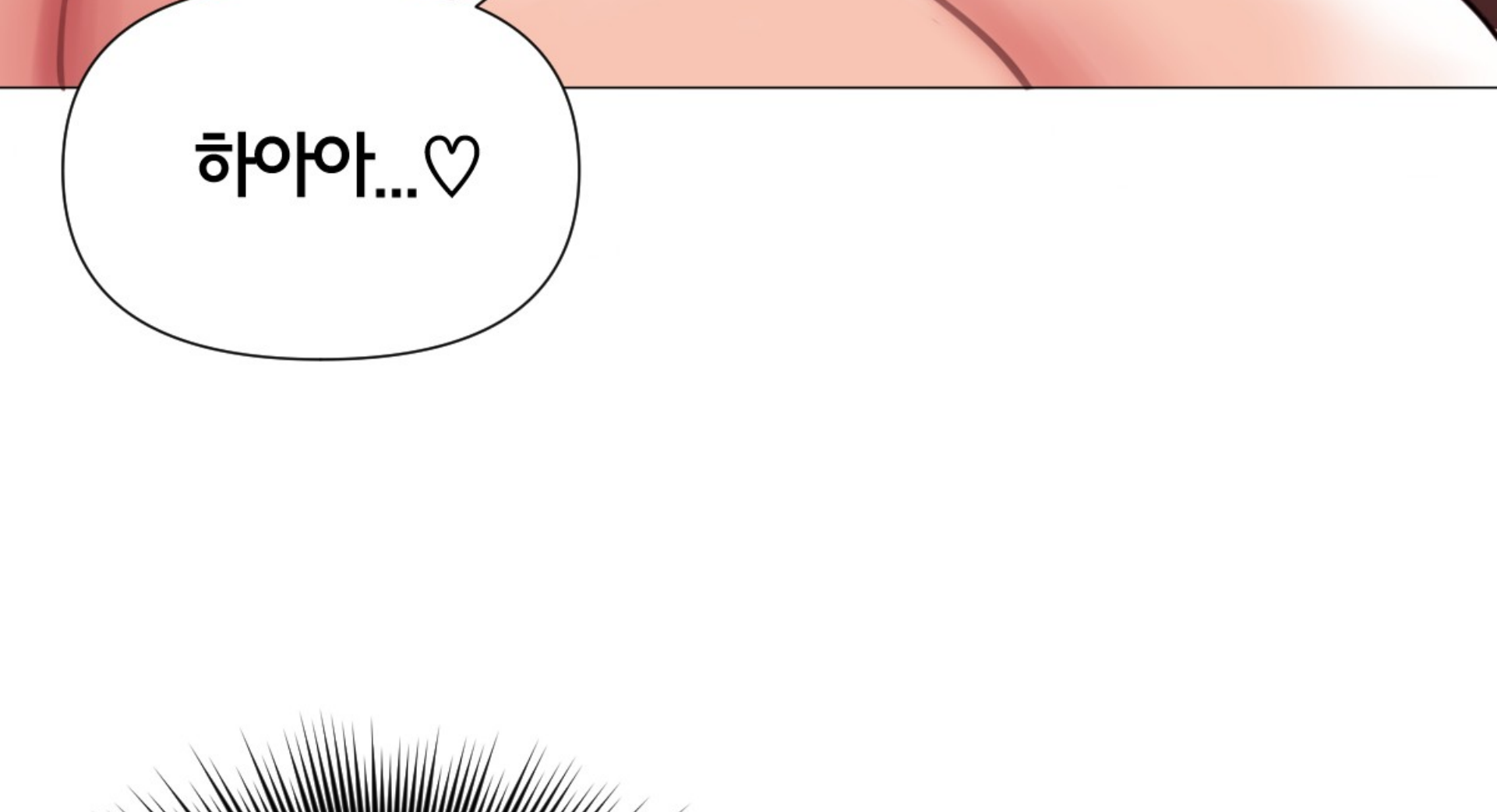
너무 아깝다고.



.....



하아아...♡



분명...
나를 현혹하기 위한
간교한 말인데...



왜지...



당장 이 모든 일을 상부에 보고하거나,



아니면 이 도시를 지배하는



카르텔의 2인자가 되거나.



모르겠어...

모든 게
혼란스러워...



나를 둘러싸고 있던
견고한 세계가...

순식간에 붕괴된
기분이야.



껍데기만 남은
신념을 지키느니...

차라리
모두를 따라...



금단의 영역으로
가는 게...

나을지도 몰라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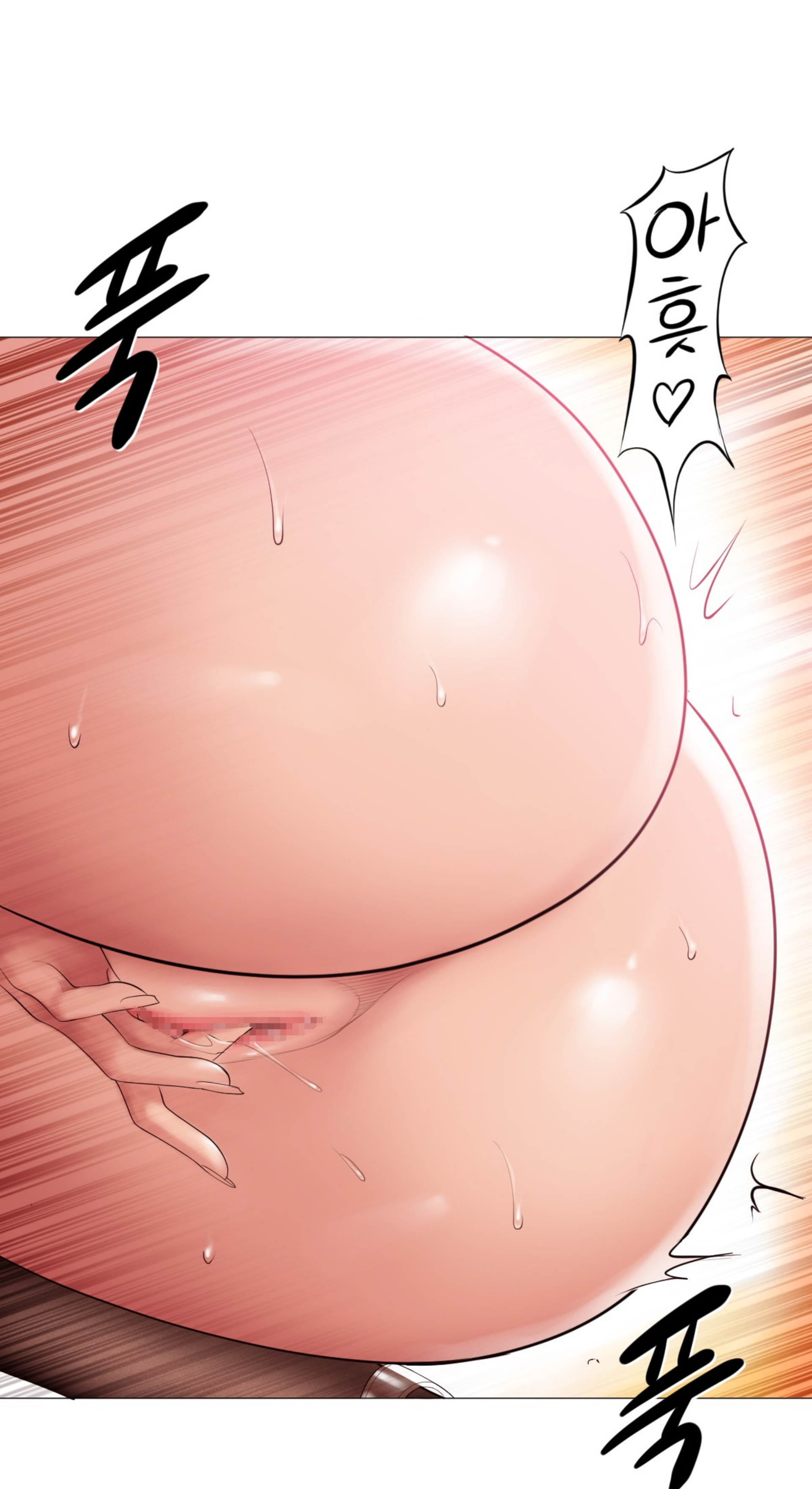
우음...♡



헤으음...♡







푹

아흑♡

푹



으음♡

쭈음

쭈음

헤으음...♡



.....

하아...♡
정말이지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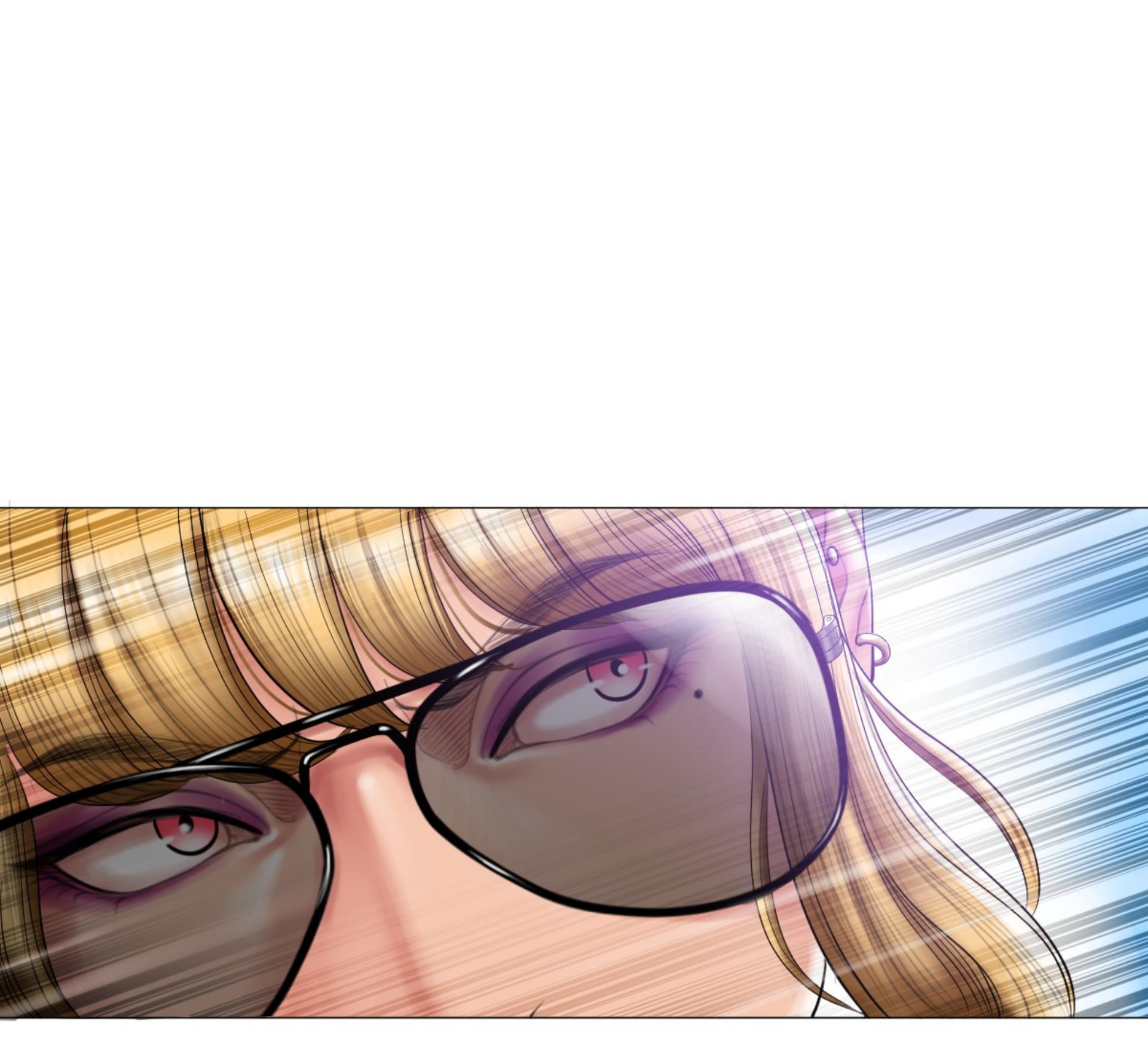


정아

이런 옷을 입히고
파렴치한 짓을
시키다니...♡

그것도 남편
순찰구역 앞에서...
악취미야.









미안, 여보.

하지만...

당신이
자초한 일이야.